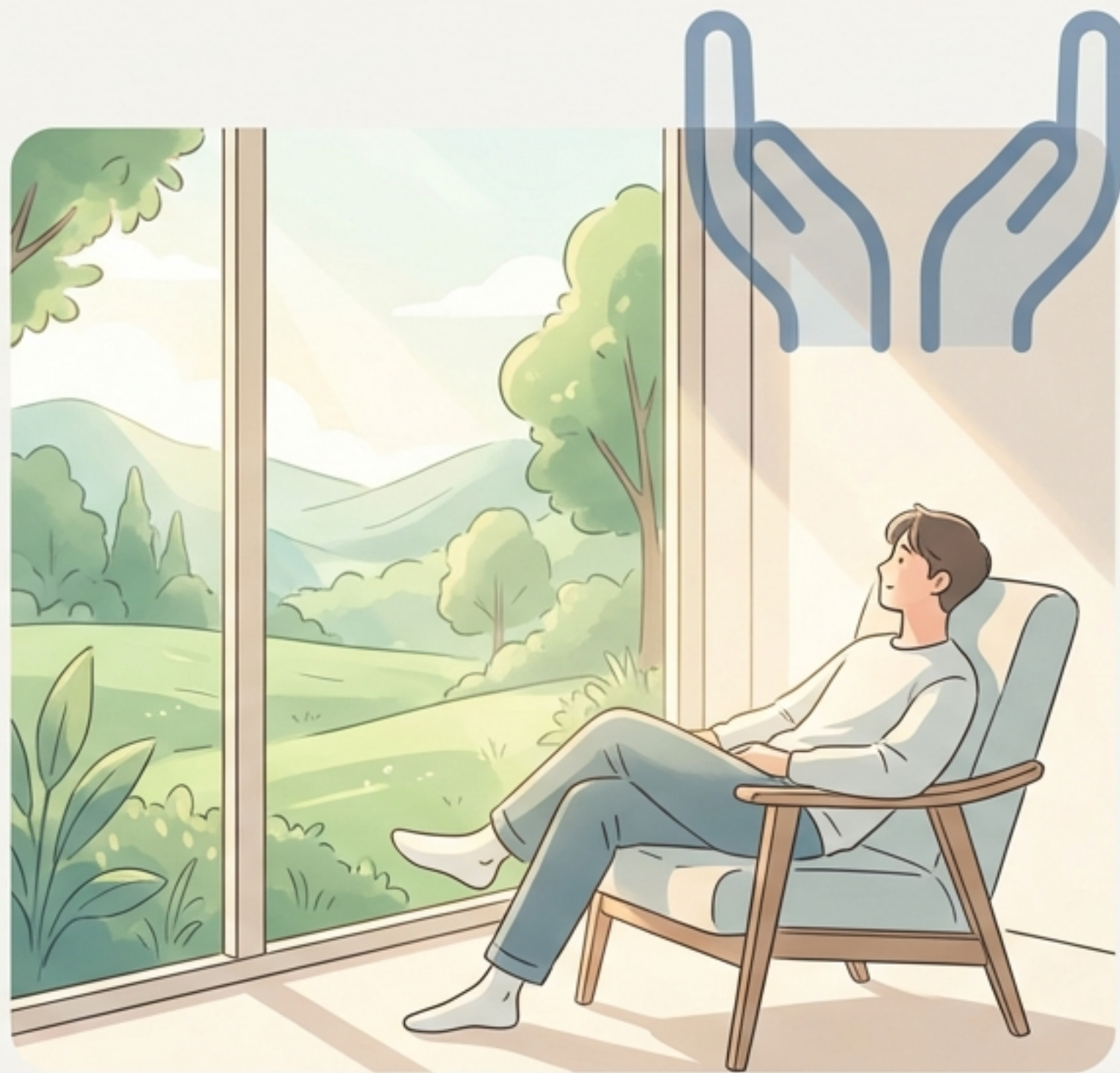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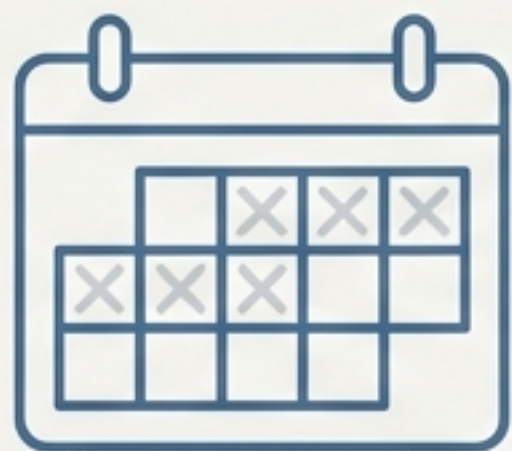
휴업급여 청구서 완전정복 가이드

치료에만 집중하세요,
쉬는 동안의 월급은 나라가 챙겨드립니다.



한 줄 요약: 이게 정확히 뭔가요?

치료받느라 일 못한 날, 평균 월급의 70%를 나라에서!



누가?: 산재 승인 근로자
(환자 본인)



무엇을?:
평균임금의 70%



왜?: 치료 기간 동안의
생계 보장

딱 두 곳만 기억하세요: 병원과 근로복지공단



1. 환자 (본인)

서류 작성



2. 병원 원무과

서류 접수 대행



3. 근로복지공단

서류 심사 및 지급



Tip: 병원 원무과에 맡기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합니다.
작성을 도와주기도 합니다.

황금룰 1: 기간은 '소급 적용'입니다

미래 날짜는 NO!
이미 지난 날짜만 YES!



"후불 청구 원칙"
(예: 1월 31일 이후 1월분 청구)

"예측 청구 불가"
(예: 2월이 되기 전에 2월분 미리 청구)

의사 소견과 별개로,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승인한 요양 기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황금률 2: 소득은 '100% 정직하게'



경고: 몰래 한 아르바이트,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등 숨겨진 소득은 '부정수급'입니다.



적발 시: 지급액의 2배 환수 + 형사 처벌

- ☐ 치료 기간 중 다른 소득이 있었나요? (예: 일용직, 아르바이트, 배달)
- 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월급/상여금이 나왔나요?

→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청구서에 '예'로 체크하고 사실대로 신고하세요.

황금룰 3: 계좌는 '압류 걱정 없이'

개인 채무 때문에 산재 급여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되시나요?

해결책: '희망지킴이 통장'을 개설해서 사용하세요.



법적으로 압류 금지



**산재 보험급여 수급권을
완벽하게 보호**

안내: 산재 승인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한눈에 비교: 반려되는 청구서 vs. 바로 승인되는 청구서

✗ 나쁜 예

청구 기간	2월 1일 ~ 2월 28일 (아직 오지 않은 미래 기간)
취업 여부	'아니오' (3일간 일한 아르바이트 사실 숨김)

결과: 반려 또는 부정수급 처벌

✓ 좋은 예

청구 기간	1월 1일 ~ 1월 31일 (이미 지난 과거 기간)
취업 여부	'아니오' (소득 없음) 또는 '예' (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50만원 수령 사실 기재)

결과: 신속 지급

원무과에 이렇게 말씀하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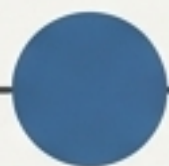
원무과 선생님, 이번 달 치료비 계산하면서
휴업급여 청구서도 같이 접수해 주세요.
저번 달이랑 계좌번호는 똑같아요.

Tip: 매달 병원 갈 때마다 잊지 말고 신청해서
현금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.

신청 후, 언제쯤 입금되나요?

최초 신청 시

평균임금 산정 등 최초 심사 필요



약 2주

2회차부터

기존 정보로 신속 처리



영업일 기준 7일 이내

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나요?

(사고 전 3개월 월급 총액 ÷ 90일)



나의 1일 평균임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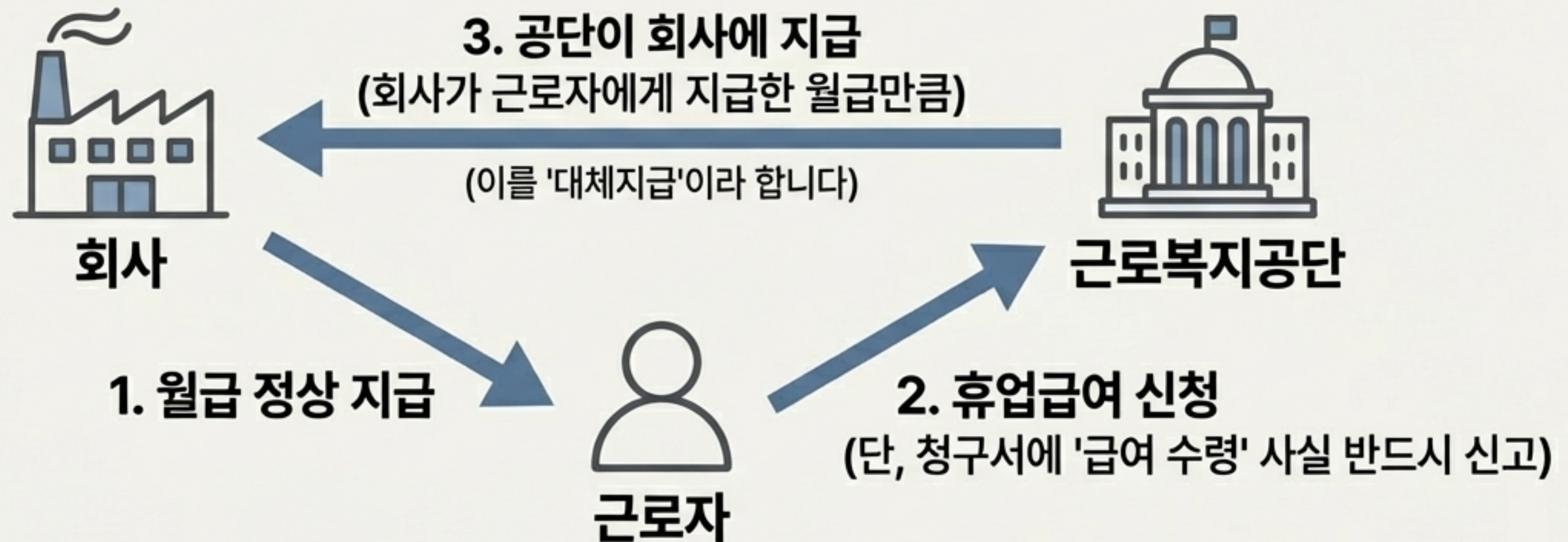


(나의 1일 평균임금) x 70% x (일 못한 날짜 수)

안심하세요: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어도 걱정 마세요.
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장해드립니다.

회사에서도 월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?

핵심 원칙: 이중 지급 금지



결론: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지만, 돈의 출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.
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



제출 전,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!

- ☐ 청구 기간은 '승인된 과거' 날짜가 맞나요?
- ☐ 숨긴 소득은 없나요? (알바, 상여금 등 모두 포함)
- ☐ 계좌번호는 정확한가요? (압류 방지가 필요하면 '희망지킴이 통장')
- ☐ 병원 원무과에 접수를 요청했나요?

몸과 마음의 회복에만 집중하세요.

휴업급여 제도는 당신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
돕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.

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병원 원무과에
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